

소득보장 정책에서의 기본소득 보장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미치는 영향

김성기

상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The Effects of Basic Income Security on Poverty Elimination and Life Independence in Income Security Policies

Sung-Ki Kim

Dept. of Social Welfare, Sangji University, Doctor completion

요 약 본 연구는 소득보장 정책에서의 기본소득 보장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데 목적을 갖고 실증분석 하였다. 변수는 기본소득보장의 노령연금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고용보험으로서의 실업급여와 생계급여에 따른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을 종속변수로 하여 한국복지패널 10차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분석 하였다.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소득보장정책에서의 기본소득보장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미치는 영향력은 노령연금의 일환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생계급여는 유의적이지 않아 기각되었다. 그리고 빈곤해소는 생활자립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채택되었다. 이는 노령연금은 모든 하위소득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성 소득보장책으로 매우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데 유용함을 뒷받침하고 일정한 기본소득의 보장을 통해 빈곤해소는 생활자립으로 이어져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짐을 시사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주제어 : 기본소득보장, 노령연금, 고용보험, 빈곤해소, 생활자립

Abstract This study is empirically intended to look into the effects of basic income security on poverty elimination and life independence in income security policies. To achieve this, poverty elimination and life independence through the national pension and basic pension as old-age pension for basic income security and the unemployment benefit and livelihood benefit as employment insurance were determined as dependent variables. The 10th data from Korea Welfare Panel Study were used in the statistical package program to analyze these variables. The overall findings showed that the national pension and basic pension as part of the old-age pension had a positive effect on poverty elimination and life independence. The unemployment benefit and livelihood benefit of employment insurance were not significant and they were rejected. And poverty elimin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life independence and it was adopted. Consequently, the old-age pension is a pensionable income security policy given to all the elderly with lower income, which it is very useful for guaranteeing a basic income. Poverty elimination leads to life independence through the guarantee of a certain basic income, suggesting that they a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Key Words : Basic Income Security, Old-Age Pension, Employment Insurance, Poverty Elimination, Life Independence

*Corresponding Author : skkim6003@gmail.com

Received March 13, 2019

Accepted May 20, 2019

Revised April 24, 2019

Published May 28, 2019

1. 서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지난 십여 년 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곤율은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1-5]. 이로 인해 사회보장에 대한 복지 사업의 유사·중복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6].

강신욱 외(2015)는 사회보장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소득지표를 제시한 바 있다[7]. 그는 현재 한국에서 시행중인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소득보장제도의 측정을 위해 노령연금제도와 보험제도가 사회보장지출의 약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노령연금과 보험제도가 빈곤해소에 주요변수라 하였다.

이와 같이 소득보장제도는 넓게는 재분배 정책에서, 좁게는 사회보장 정책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주로 저소득층이나 취약집단에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 소득보장제도의 효과는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효과로 곧바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만큼 소득보장제도가 전체 재분배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고령화로 인해 60세 이상 가구주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명목 가계소득이 평균대비 30% 이상 감소함에 따라 소득절벽을 경험할 고령 인구의 가구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8].

노인의 빈곤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노인의 빈곤해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노인의 소득지출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식료품 구입비용, 주거비용, 의료비용임을 고려할 때, 빈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삶을 영위하는데 위협적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9]. 특히 정부는 노인의 빈곤 완화를 위해 2007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는데 이 제도의 도입·시행에 대한 다양한 시각적 차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일시적인 갈등과 대립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제도는 학문적 연구대상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으며 그간의 관련 선행연구들은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을 논의해 왔다.

무엇보다도 주요 관심은 기본소득보장으로서의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노인 빈곤감소 효과 여부에 있었다[10-13]. 연구결과,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노인의 빈곤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지만 그 반대의 주장도

존재한다. 즉 기초노령연금이 노인의 빈곤 완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실질적인 소득 증가로 인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노인 빈곤과 관련하여 볼 때, 노인 빈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도 빈곤감소를 위한 연구적 노력만큼 의미 있는 것이지만 노인 빈곤 원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초기 노인빈곤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는 주로 노인빈곤 실태를 분석한 수준에 있다[14,15]. 이런 연구는 노인빈곤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데 기여하였지만, 노인 빈곤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제한을 갖는다. 이후 그나마 노인빈곤 원인을 과학적·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이 연구가 노인빈곤의 원인변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지적과 횡단면적인 연구로 인해 시간적 변화에 따른 독립변수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16,17].

이후 일부 연구에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더 많은 원인변수를 반영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종단면적 혹은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빈곤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17]. 하지만 지나치게 가구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중점을 두으로써 노인빈곤의 원인을 가정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에만 국한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같은 현행 복지적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한계에 따른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제가 소득불평등도 개선과 빈곤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데 있다. 이런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돕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돕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먼저는 소득보장제도의 적합성과 소득불균등의 빈곤해소에 우선 주목하고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재원 투입의 양적 규모의 예산규모가 제도의 효과성을 좌우하지만, 증가된 재원을 가지고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는가에 따라 소득보장제도의 효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소득보장제도가 어떤 계층을 지원할 목표로 설계되었으며 실제로 어떤 계층들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득력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본소득 보장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력과 생활자립요인을 밝혀 학제적 이론적 시사점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갖는다.

2. 이론적 배경

2.1 기본소득의 핵심 원칙과 소득보장체계에 대한 선행연구검토

기본소득은 “모든 개인에게 자산조사와 일에 대한 요구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18]. 이는 기본소득 핵심 원칙을 의미한다. 기본소득에서 보편성은 어떠한 선별성도 배제한다[19].

기본소득의 급여단위가 “개인단위”라는 것은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실질적 자유’의 실현단위를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20,21]. 즉, 기본소득이 지급수준의 “충분성”을 명시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지만 ‘개인단위’라는 의미에는 기본소득이 일하지 않은 사람이 일하는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라는 비판 등은 모두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8,22].

기본소득은 분배정책의 성격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소득보장유형에서 본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을 보편성과 무조건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해보면 기본소득의 지위는 노동에 대한 요구와 선별성이 강하고, 보편성과 무조건성이 강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소득보장제도를 유형화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기여형 제도(contributory scheme)와 비기여형 제도(non-contributory scheme)이다. 각 근로자나 고용주로 하여금 소득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을 보험료로 납부하게 강제하는 방식이 기여형 소득보장제도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회보험제도가 그것이다. 비기여형 소득보장제도는 조세나 기타 국가 수입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제도를 지칭한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빈곤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득보장을 하는 사회부조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기본소득은 기여형 소득변수를 준거로 하고 그 하위변수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실업급여, 생계급여를 그 대상으로 한다.

2.2 소득보장변수 관련된 논의

소득보장제도의 전반적 체계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 노대명, 여유진, 김태완, 원일(2009), 윤희숙(2012), 주은선(2013), 황덕순(2014) 등을 들 수 있다[23-26]. 노대명 등(2009)은 사회보장 사각지대의 해소와 소득보장제도의 효과성 제고, 전달 체계 관련 비용의 절감, 복지제도의 중산층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해서 사회적 수당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였다[23]. 윤희숙(2012)은 기

존의 소득보장제도들이 도입되고 발전되는 과정이 분절적, 파편적이었음을 지적하면서 제도 간의 조율과 통합을 강조하는 한편 훈련 지원을 통한 소득 보장을 강조하였다[24].

황덕순(2014)은 근로연령대 인구를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제도의 재편 필요성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그 대안으로 전통적 소득보장제도의 개선을 통한 전략(장애급여의 보완, 실업부조의 도입 등)과 기본소득을 통한 기존 제도의 보완 방안을 동시에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26]. 근로연령대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제도 확대의 필요성은 강신욱 등(2015)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27], 황덕순(2014)은 더 나아가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26]. 한편 주은선(2013)은 새로운 소득보장체계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그 방법으로 기존 소득보장체계의 요소와 보편적수당(한시적 시민수당)의 도입을 제안하였다[25].

이들의 연구는 소득보장제도가 직면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별 제도의 부분적 개선에 머무르지 않는 근본적 소득보장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점에서는 동일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 대안에 있어서는 기존 제도들의 동시적 조정이나 체계성 강화로부터 사회수당이나 기본소득의 도입 등 상이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의 환경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23,25,28-32].

현재의 소득보장제도를 둘러싼 환경변화가 이전과 다른 질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기존 제도를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는 다가오는 변화에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 대안적인 소득보장제도를 모색하는 시도들이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취업과 실업,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구분이 기술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 사회보험 중심의 소득보장제도가 잘 작동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그것이다[33].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기존의 제도적 보호에서 상대적으로 중시되지 않았던 근로연령대의 빈곤층이나 빈곤 위험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강신욱, 김태완, 정해식, 김현경, 김근혜(2016)는 최근 제시된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쟁점과 함의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때 대안적 소득보장제로서는 기본소득제, 청년수당 등의 재분배 프로그램과 최저임금 수준을 대폭 상승하는 분배 정책 등이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다[34]. 대안적 소득보장제도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은 근로능력이 있는 집단(예, 청년, 불완전 취업자, 비공식부문 취업자 등)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접근이라는 점이다.

근로연령대의 저소득층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소득보

장제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혼란지원과 고용축진을 여전히 강조할 것인가[24] 아니면 고용상태와 관련 없는 무조건적 소득보장 기제를 도입할 것인가 [28-30]가 중요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가지의 쟁점은 기본소득제도처럼 기존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대체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욕구에 대한 대응성이나 기존 제도의 역할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것인가이다 [33,35].

한편 전통적 소득보장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외의 논의를 보면, 전통적(사회보험 위주) 소득보장제도가 갖는 한계가 일찍부터 논의되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발전 방향의 논의는 크게 세 갈래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넬슨(2007)이나 막스와 넬슨(2013) 등과 같이 사회부조제도 또는 최저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군의 종합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소득보장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논의이다[36-39].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사회보험의 역사가 길어 대상자 포괄성과 급여의 충분성이 한국에 비해 나은 국가들의 사정에 기반하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즉, 사회보험의 소득보장 기능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존에 부차적 기능을 담당하던 공공부조제도 등 최저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방향으로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의 배열과 기능이 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상황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둘째는 베사르프와 코치(2012) 등과 같이 빈곤의 다차원성 논의에 부리를 두고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자산 및 소비 지원 정책이나 비소득 화폐 지원 정책의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논의이다[40]. 이와는 다소 다른 각도에서 OECD는 현물 지원을 포함한 공적 이전의 효과를 측정, 비교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41]. 이는 현금 지원 이외에도 기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는 접근들이다. 소득보장 제도의 발달에 대한 논의에서 현물 지원의 역할은 현금 급여의 부담을 덜어 주거나 반대로 늘리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소득보장제도의 체계화 방안을 논의할 때 현물 지원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논의는 이미 국내에서도 많이 소개된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대한 논의이다[42-44]. 기본소득론은 모든 국민에게, 소득이나 재산 보유액은 물론 인구학적 특성과 상관없이,

일정한 액수를 동일하게 지급할 것을 주요 내용을 하는 재분배 정책 프로그램이다. 아직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국가는 없지만 일부지역에서 다소 변형된 형태로 실시되거나 시험되고 있으며, 국내외 연구자들도 도입 가능성과 효과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들이 현실적 대안으로서 적실성과 설득력을 지닐지 여부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로부터 각 대안이 귀납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또는 특정 대안이 다른 안들에 비해 갖는 장단점이나, 각 방안을 절충하거나 조화했을 때의 가능성과 문제점들에 비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2.3 소득불균형에 따른 빈곤해소와 생활자립

소득은 경제력을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며, 지역주민들이 지역경제수준을 인식할 때 근로소득이 지역 경제력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45]. 경제적 빈곤해소를 측정함에 있어서 소득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다. 소득 수준이 불균형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주변에서 자신보다 높은 소득을 가지는 사람과 비교를 하며 더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원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월감과 만족감을 느낀다.

Wilkinson(2005)은 그의 저서를 통해 소득이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더욱 폭력적이며, 사회 구성원간의 친화력과 결속력이 낮아지는 등 소득 불평등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46]. 이처럼 경제적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 빈곤문제는 전문가와 대중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빈곤문제를 측정하고 완화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개인(또는 가구) 소득 빈곤에 관한 기존문헌들은 개인의 경제적 빈곤문제를 측정하고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경제적 빈곤에 관한 기존문헌들은 앞서 제시된 이론적 논의들을 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는데, 유경준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47]. 유경준(2007)은 소득 양극화의 의미를 해석하고 198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적 빈곤문제와 양극화 추이를 분석하였다[47]. 그리고 소득불평등도의 변화와 경제 성장의 변화 간에는 정비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양극화 해소를 정책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Fields & Yoo(2000)는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소득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소득 불균형의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48]. 이상의 연구에 의하면, 분석 기간에

따라 그 원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영향 요인의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 여러 측면에서 겪었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 설계

3.1.1 연구모형

기존 선행연구를 볼 때 사회적 약자의 기본소득보장제도와 관련된 변수 중 노령연금의 국민연금, 기초연금이 주로 사용된다[49]. 그리고 고용보험에서는 실업급여, 생계급여가 대상이다. 이들 변수에 따라 김동수 외(2011)가 제안한 경제적 빈곤 변수로서 사회보험제도와 누진체계의 소득세, 이전소득 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주요변수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이들 변수를 모형에 반영하고자 한다[45].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연구 모형은 한국복지패널에서 동 지표에 대한 조사가 정기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이를 기준 척도로 패널 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를 이용하여 독립변수로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실업급여, 생계급여를 반영하고, 종속변수로는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을 반영하여 Fig.1 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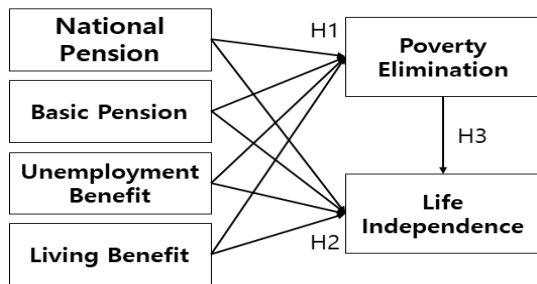


Fig. 1. Analytical Framework

3.2 가설설정

위 연구모형에 근거한 연구 검정할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먼저 홍경준(2004)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할 경우 소득보장의 과소보고 문제가 있어 이를 그대로 활용

하는 것보다 최저생계비가 기본소득에 해당하면 이를 빈곤해소의 변수로 간주하였다[51,52]. 최옥금(2007)은 이들의 주장을 근거로 가구의 총소득을 균등화 지수로 조정된 균등화 소득을 활용하여 기본소득을 구한 다음 이 기본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빈곤선으로 정의하였다[17].

홍백의(2005)는 4인 가구 기본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적 빈곤개념을 이용하여 빈곤자와 비빈곤자를 구분하였다. 이때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OECD의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는 가구 균등화 지수를 이용하여 빈곤해소를 판정하였다[16].

황명진(2016)은 노인 빈곤을 보건복지부가 기본소득을 기준으로 제시한 공식적인 기초생계인 빈곤선을 사용하여 빈곤의 여부를 측정하였다[53].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홍백의(2005)와 최옥금(2007)의 소득보장의 판단기준인 가구의 기본소득을 활용하여 기본소득보장변수로 정의하고 이를 활용하고자 한다[16,17].

이상의 가설을 규명하기 위한 변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설1: 소득보장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보장은 빈곤해소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소득보장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보장의 국민연금은 빈곤해소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소득보장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보장의 기초연금은 빈곤해소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소득보장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보장의 실업급여는 빈곤해소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4: 소득보장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보장의 생계급여는 빈곤해소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소득보장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보장은 생활자립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 소득보장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보장의 국민연금은 생활자립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2: 소득보장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보장의 기초연금은 생활자립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3: 소득보장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보장의 실업급여는 생활자립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4: 소득보장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보장의 생계급여는 생활자립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소득보장정책으로서의 빈곤해소는 생활자립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연구 대상

본 분석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분석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의 가장 최근 연도 배포 자료인 10차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0차 자료는 가구 및 개인의 다양한 특성에 대해서는 2015년의 실태를 보고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에서 제공한 10차 자료는 3-4년 주기로 시행하는 복지패널 자료로 전국적인 대표성을 가진다. 표본 대상은 성인 가구주 5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50].

3.4 측정변수의 선정과 분석방법

3.4.1 측정변수의 선정

- 기본소득보장 : 기본소득보장은 김동수 외(2011)가 제안한 노령연금으로서의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고용보험으로서의 실업급여, 생계급여로 구성하였고 측정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45].

- 소득불균형완화를 위한 빈곤해소와 생활자립 : 소득불균형 완화를 통한 빈곤해소와 생활자립 변수는 김동수 외(2011)가 사용한 사회보험제도, 누진체계의 소득세 이전소득세 제도 등을 응용하여 사용하고 측정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45].
- 통제변수 : 통제변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장애 관련 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성별, 종교, 혼인상태는 이혼, 사별, 별거 등으로 교육과 수입 및 소득변수를 기준으로 더미 변수(Dummy Variable)화 하였다.

3.4.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분석자료의 데이터 코딩을 거쳐 SPSS ver 23.0을 사용하여 통계적 자료처리를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표본의 인구 통계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변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 Composition and Measurement of Variables

Variable		Variable Measurement and Method
Independent Variable	Old-Age Pension	National Pension 1=Very Unsatisfied, 2=Unsatisfied, 3=Normal, 4=Satisfied, 5=Very Satisfied
		Basic Pension 1=Very Unsatisfied, 2=Unsatisfied, 3=Normal, 4=Satisfied, 5=Very Satisfied
	Employment Insurance	Unemployment Benefit 1=Very Unsatisfied, 2=Unsatisfied, 3=Normal, 4=Satisfied, 5=Very Satisfied
		Living Benefit 1=Very Unsatisfied, 2=Unsatisfied, 3=Normal, 4=Satisfied, 5=Very Satisfied
Dependent Variable	Poverty Elimination	Absolute Poverty 1=Very Unhelpful, 2=Somewhat Unhelpful, 3=Normal, 4=Somewhat Helpful, 5=Very Helpful
		Relative Poverty 1=Very Unhelpful, 2=Somewhat Unhelpful, 3=Normal, 4=Somewhat Helpful, 5=Very Helpful
	Life Independence	Social Independence 1=Very Unhelpful, 2=Somewhat Unhelpful, 3=Normal, 4=Somewhat Helpful, 5=Very Helpful
Control Variabl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0=Male, 1=Female
		Religion 0=NO, 1=YES
		Marital Status 0=No Spouse 1=Spouse 3=Divorce 4=Bereavement 5=Separation
		Academic Background 0=Under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1=Under Middle School Graduation 2=Under High School graduation 3=Under College Graduation 4=Under University Graduation 5=Over Graduate School Graduation
		Receipt or No Receipt 0=No Receipt, 1=Receipt
		Income 1= <200 2= 200<,<300 3= 300<,<400 4= 400<,<500 5= 500>

둘째, 측정변수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내적일관성을 분석할 수 있는 Cronbach's Alpha값을 사용하여 신뢰분석을 하였으며,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분석 및 논의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Table 2. Frequency Analysis Result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198	41.9
	Female	274	58.1
Religion	NO	153	32.4
	YES	199	42.2
Marital Status	No Spouse	257	54.4
	Spouse	87	18.4
	Divorce	63	13.3
	Bereavement	49	10.4
	Separation	16	3.4
Academic Background	Under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196	41.5
	Under Middle School Graduation	117	24.8
	Under High School graduation	70	14.8
	Under College Graduation	45	9.5
	Under University Graduation	29	6.1
	Over Graduate School Graduation	15	3.2
Receipt or No Receipt	No Receipt	213	45.1
	Receipt	259	54.9
Income	<200	179	48.2
	200<,<300	118	31.8
	300<,<400	45	12.1
	400<,<500	18	4.9
	5= 500>	11	3.0

인구통계학적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 198명(41.9%), 여성 274명(58.1%)로 여성이 좀 더 많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종교는 153명(32.4%)이 없음으로 응답하였고, 있음은 199명(42.2%)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로는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가 257명(54.4%)로

과반 수 이상을 나타냈고, 배우자 없음은 87명(18.4%), 이혼은 63명(13.3%), 사별 49명(10.4%), 별거 16명(3.4%)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초등학교졸업 이하가 196명(41.5%), 중학교 졸업 이하 117명(24.8%), 고등학교 졸업이하 70명(14.8%), 전문대 졸업이하 45명(9.5%), 대학교 졸업이하 29명(6.1%), 대학원 졸업이상 15명(3.2%)로 나타났다.

수급여부는 미수급 213명(45.1%), 수급 259명(54.9%)로 나타났다. 월 수입으로는 200만원 미만 179명(48.2%),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18명(31.8%),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45명(12.1%),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8명(4.9%), 500만원 이상 11명(3.0%)으로 나타났다.

4.2 신뢰분석과 타당도 분석

Table 3. Results of Reliability Analysis and Validity Analysis

Classification	Item Number	Reliability Analysis	Factor Analysis	
		Cronbach's α	KMO	Approximate Chi Square
Poverty Elimination	2	0.782	0.679	255.660

본 연구에 사용된 구성개념은 빈곤해소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빈곤해소의 Cronbach's Alpha값 0.782 로 허용기준치인 0.6이상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만족할만한 신뢰도가 충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측정도구가 연구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제대로 측정하였는지 검증하는 방법으로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요인분석을 진행한 결과 KMO값 0.679로 단일요인임을 확인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4.3 상관분석

Table 4 는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Pearson상관계수로 빈곤해소와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국민연금과의 상관관계는 $r=0.537^{**}$, $p=0.000$ 로 양적 선형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초연금과의 상관관계는 $r=0.353^{**}$ $p=0.000$ 으로 약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실업급여와 생계급여와의 상관관계는 각각 $r = -0.106^*$, $p=0.000$, $r = -0.129^{**}$, $p=0.000$ 로 음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거나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지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빈곤해소와 생활자립과의 상관관계는 $r = 0.712^{**}$, $p=0.000$ 로 양적 선형관계가 뚜렷하게 있음을 나타내었다.

Table 4.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Classification		A	B	C	D	E	F
National Pension (A)	Pear.r	1					
Basic Pension (B)	Pear.r	.481**	1				
	p-value	0.000					
Unemployment Benefit (C)	Pear.r	-0.043	.378**	1			
	p-value	0.347	0.000				
Living Benefit (D)	Pear.r	-.191**	.212**	.404**	1		
	p-value	0.000	0.000	0.000			
Poverty Elimination (E)	Pear.r	.537**	.353**	-.106*	-.129**	1	
	p-value	0.000	0.000	0.021	0.005		
Life Independence (F)	Pear.r	.526**	.361**	0.012	-0.075	.712**	1
	p-value	0.000	0.00	0.788	0.106	0.000	

4.4 가설 1에 대한 회귀분석

Table 5.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for Hypothesis 1

	Dependent Variable: Poverty Elimination	Nonstandardized		Standardized	t	p	Hypothesis
		B	SE	β			
1	(Constant)	2.203	0.122		18.012	0.00	Adoption
	National Pension	0.389**	0.031	0.497**	12.417	0.00	
2	(Constant)	2.735	0.118		23.172	0.00	Adoption
	Basic Pension	0.294**	0.036	0.356**	8.269	0.00	
3	(Constant)	3.794	0.150		25.213	0.00	Rejection
	Unemployment Benefit	-0.034	0.041	-0.039	-0.839	0.40	
4	(Constant)	3.738	0.107		35.036	0.00	Rejection
	Living Benefit	-0.023	0.035	-0.031	-0.665	0.507	

위에 Table 5는 종속변수를 빈곤해소로 설정하고 독립변인을 각각 국민연금, 기초연금, 실업급여, 생계급여로 설정하여 단순회귀 분석을 4 차례로 진행한 결과이다. 먼저 국민연금이 빈곤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β = 0.497**, t = 12.417, P = 0.000으로 유의한 정의 결과를 나타냈고, 기초연금 역시 빈곤해소에 β = 0.356**, t = 8.269, P = 0.000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업급여(β = -0.039, t = -0.839, P = 0.402)와 생계급여(β = -0.031, t = -0.665, P = 0.507)는 빈곤해소에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4.5 가설 2에 대한 회귀분석

Table 6.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for Hypothesis 2

	Dependent Variable: Life Independence	Nonstandardized		Standardized	t	p	Hypothesis
		B	SE	β			
1	(Constant)	1.955	0.123		15.899	0.000	Adoption
	National Pension	0.374**	0.031	0.480**	11.878	0.000	
2	(Constant)	2.371	0.116		20.404	0.000	Adoption
	Basic Pension	0.313**	0.035	0.381**	8.946	0.000	
3	(Constant)	3.160	0.150		21.134	0.000	Rejection
	Unemployment Benefit	0.058	0.040	0.066	1.433	0.152	
4	(Constant)	3.397	0.106		31.980	0.000	Rejection
	Living Benefit	-0.010	0.035	-0.013	-0.285	0.776	

위에 Table 6은 종속변수를 생활자립으로 설정하고 독립변인을 각각 국민연금, 기초연금, 실업급여, 생계급여로 설정하여 단순회귀 분석을 4단계로 진행한 결과이다. 먼저 국민연금이 생활자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β = 0.48**, t = 11.878, P = 0.000으로 유의한 정의 결과를 나타냈고, 기초연금 역시 생활자립에 β = 0.381**, t = 8.946, P = 0.000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업급여는 생활자립에 β = 0.066, t = 1.433, P = 0.152, 생계급여는 β = -0.013, t = -0.285, P = 0.776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4.6 가설 3에 대한 회귀분석

Table 7.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for Hypothesis 3

Dependent Variable: Life Independence	Nonstandardized		Standardized	t	p	Hypothesis
	B	SE	β			
(Constant)	0.768	0.121		6.350	0.000	Adoption
Poverty Elimination	0.708**	0.032	0.712**	21.962	0.000	

위에 Table 7은 종속변수를 생활자립으로 설정하고 독립변인을 빈곤해소로 설정하여 단순회귀 분석을 진행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빈곤해소가 생활자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beta=0.712^{**}$, $t=21.962$, $P=0.000$ 으로 유의한 정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4.7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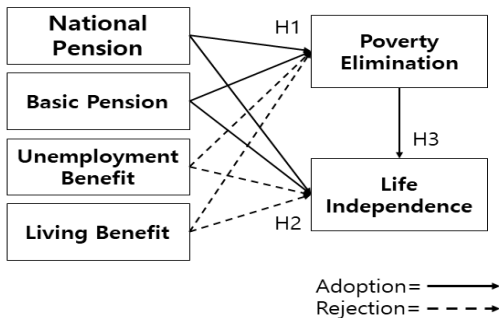


Fig. 2. Analytical Result

이상의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 결과 소득보장정책에서의 기본소득보장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미치는 영향력은 노령연금의 일환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생계급여는 유의적이지 않아 기각되었다. 그리고 빈곤해소는 생활자립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채택되었다. 이는 노령연금이 모든 하위소득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성 소득보장정책으로 매우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데 유용함을 뒷받침하고 일정한 기본소득의 보장을 통해 빈곤해소를 통해 생활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노령연금을 통한 기본소득 보장으로서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실질적인 빈곤해소에 도움이 되고 빈곤극복을 통한 기본소득의 보장으로 생활자립에 이점을 실증해준 결과로 이들 변수 간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짐을 시사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기수행된 박미현, 정영순(2009)은 노후소득보장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제도를 권장할 것을 제안한 연구를 뒷받침하고[54], 손병돈(2012)은 기초노령연금의 제한적 역할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적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을 인상할 것을 제안한 바 있어 이들 연구결과를 지지해준다[55]. 그리고 비교적 최근의 논의된 양재진(2016)이나 김연명, 한신실(2017)과 같이 국민연금의 강화를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56,57] 정다운, 임현(2016)이나 박진화(2017)와 같이 기초연금과 선별적 공공부조제도로써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 강화에 주목하는 논의[58,59]들로 볼 때 연금제도의 유용성을 본 연구를 통해 학제적 시사점을 갖는다.

5. 결론

이상의 도출된 결과를 종합하면 소득보장정책에서의 기본소득보장요인으로 노령연금은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효과로 연결되어 그만큼 소득보장제도가 전체 재분배를 위한 적합성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소득보장 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보장의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생계급여는 유의적이지 않아 기각된 것은 기본소득 보장 정책으로서의 고용보험이 저소득층이나 취약집단에게 현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조적 성격을 띠고 있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생계급여가 실질적 기본소득 지원보다 일시적 실업상태와 생계불안에 따른 제한된 조건과 상태에서만 한시적으로 받는 보험성격의 소득보장으로 빈곤과 생활자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균형 잡힌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소득불균형 요인을 무조건성에 대한 비판을 보완한 상대적 기준의 설정과 적용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본소득 결정요인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가 결정한 노인빈곤과 실제의 노인 빈곤 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을 포함한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나 그러지 못한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그리고 변수를 지나치게 명목형 척도로 구성하여 변수가 지닌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추가적인 분석에 제한을 갖기 때문에 원인변수에 관한 상세한 설명에 한계를 갖는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노인빈곤 원인에 관한 기존연구에 비해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가 지닌 한계 즉 실제적 빈곤에 양적 변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을 수정보완한 연구모형을 통해 노인 빈곤 원인에 대하여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S

- [1] J. W. Kim. (2010). Expansion and Limitations of Social Security System in Korea: The Performance and Rethinking Blind Spot, *Korean Social Policy*, 17(1), 63-93. <https://doi.org/G901:A-0002778114>
- [2] J. J. Yang. (2014). Coping with Structural Problems in the Korean Labor Market for National Cohes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18, 27-38. <https://doi.org/G901:A-0003741607>
- [3] B. H. Lee. (2011). Incentive mechanism for promoting transition to formal employment, *Trend and Prospect*, 82, 185-211. <https://doi.org/G901:A-0002 999334>
- [4] Y. J. Yeo. (2004).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and the Blind Spot of Poverty: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upport and Private Support,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4(1), 3-29. <https://doi.org/G901:A-0001971923>
- [5] K. J. Hong. (2003). Measures to Expand Social Security for the Working Poor,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77, 42-56. <https://doi.org/G901:A-00017 60401>
- [6] C. S. Nam. (2016). The Transition of Discourse on Welfare Service Overlapping or Duplication and its Implications to Social Security Strategy, *Critical Social Policy*, 50, 126-164. <https://doi.org/G901:A-0003 934081>
- [7] S. W. Kang, H. K. Kang, D. M. Roh, H. J. Lee & B. J. Lee. (2015). Direction and Challenges of Social Security Policy Evalu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https://doi.org/G901:A-000659 5507>
- [8] T. W. Kim, J. W. Jung & J. M. Lee. (2015). A Study of Elderly Poverty and Depression: Focusing on the Multidimensional Concept of Poverty.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5(3), 71-102.
- [9] S. H. Lee. (2015). *Change in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Structure in 2015: Based on Effect of Increasing Elderly Population on Economy*. KB Knowledge Vitamin, 15-19.
- [10] S. H. Seok. (2010). An Analysis on the Anti-poverty Effectiveness of the Basic Old-Age Pension System.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50, 335-352.
- [11] J. E. Seok. (2010). Impacts on the Effectiveness and the Efficiency of Poverty Alleviation of Public Pension and Basic Old-Aged Pension: Seoul Metropolitan City. *Social Welfare Policy*, 37(3), 193-214.
- [12] K. D. Nam. (2010). Korean Elders' Poverty and Basic Old Age Pension's Measures for Mitigating Their Poverty. *Welfare Administration Study*, 26, 235-260.
- [13] S. H. Kim. (2016). An Analysis on the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Basic Pens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36, 82-97.
- [14] H. G. Jung, J. A. Jo, H. Y. Oh, G. J. Byeon & S. H. Moon. (1998). *The 1998 Elderly Living Condition Survey*.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15] H. S. Choi & Y. K. Ryu. (2003). A Study on the Levels, Trends, and Composition of the Old-Age Poverty in Korea.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3(3), 143-160.
- [16] B. E. Hong. (2005). Factors Influencing the Economic Status of the Elderly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7(4), 275-290.
- [17] O. G. Choi. (2007). Factors Influencing Poverty of the Elderly: Utilizing the Panel Data Model.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9(1), 5-25.
- [18] P. Van Parijs, (2006). "Basic income: A simple and powerful idea for the twenty-first century." In Ackerman, B., Alstott, A., and van Parijs, P. (eds.), *Redesigning distribution: Basic income and stakeholder grants as cornerstones for an egalitarian capitalism*, 7-38. New York: Verso. <https://doi.org/10.1177/0032329203261095>
- [19] H. S. Yoon. (2011). "Essence of universalism in welfare policy", *Korean Social Welfare Studies*, 63(2), 57-79. <https://doi.org/G901:A-0003337910>
- [20] N. H. Kang. (2014). Do we have to give basic income to the grasshopper? Daegu: Greenreview Publishing Company, *Greenreview Serial Number 135*, 151-163. <https://doi.org/G901:A-0003651188>
- [21] K. S. Kim. (2009). A Comparative Study of Classification & Poverty Alleviation Effect of Social Assistance Programs,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Welfare Policy*, 36(1), 61-87. <https://doi.org/G901:A-0002629446>
- [22] J. H. Seo & K. J. Cho. (2008). A Conception of New Redistribution Schemes -Based on Basic Income and Stakeholder Grants, *The Korean Social Security Association*, 24(1), 27-50. <https://doi.org/G901:A-0002465810>
- [23] D. M. Noh. & Y. J. Yeo. & T. W. Kim. & I. Won.l (2009).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the social allowance system*.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24] H. S. Yoon. (2012). *Design of an integrated income security system*.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25] E. S. Joo. (2013). Korea's Alternative Income Guarantee System - Opinion on Combining Current Welfare State Programs with Temporary Citizens' Allowance, *Critical Social Policy*, (38), 83-126
- [26] D. S. Hwang. (2014). The Present Status and

-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Income Security System for the Age of Labor *Announcement of the Society for Social Welfare for Criticism and Alternatives*, 59-74.
- [27] S. W. Kang, D. M. Noh, H. J. Lee, W. S. Lim, H. K. Kim & M. I. Kwon. (2015).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Major Income Security Policies*.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28] K. S. Kim. (2017). The 20-year financial crisis, the development and limitations of income security policies. *Korean Social Policy*, 24(4), 151-184.
- [29] N. H. Kang. (2010). The introduction model of basic income and the economic effects. *Progressive Review* (45), 44-78.
- [30] S. H. Lee., J. A. Lee & S. H. Baek. (2016). Korea's unstable youth labor market and youth basic income policy. *Critical Social Policy*, 52, 365-405.
- [31] H. S. Yoon. (2017). Can it be an alternative to basic income, welfare state?: Basic pension, social benefits, and basic income, *Critical Social Policy*, (54), 81-119.
- [32] M. S. Eun. (2017). Native Income Tax (NIT) Assurance - Critical Analysis of Canada's Introductions and Exploring Applicable Measures to Korea. *Critical Social Policy*, (54), 7-51.
- [33] D. S. Hwang, C. I. Park, J. S. Park, D. Howcroft, B. Bergball-Kareborn & J. Berg, et al. (2016). *A Study on the Changes in Employment Relations and the Paradigm of Social Welfare*. The Korea Labor Institute.
- [34] S. W. Kang, T. W. Kim, H. S. Jung, H. K. Kim & G. H. Kim. (2016). *Issues and implications of alternative income security systems*.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35] B. I. Kim. (2016). Is basic income the best alternative to social security?: Critical review based on the need for social policy (needs. *Social welfare policy*, 43(4), 79-107.
- [36] K. Nelson. (2007). Universalism versus Targeting: The Vulnerability of Social Insurance and Means-tested Minimum Income Protection in 18 Countries, 1990-2002.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60, 33-58.
- [37] K. Nelson. (2009). Social Assistance and Minimum Income Benefits in Old and new EU Democraci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9, 367-378.
- [38] K. Nelson. (2013). Social Assistance and EU Poverty Thresholds 1999-2008. Are European Welfare Systems Providing Just and Fair Protection Against Low Incom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9(2), 386-401.
- [39] I. Max & K. Nelson. (2013). *Minimum Income Protection in Flux*. Springer.
- [40] D. Besharov & K. Couch. (Ed). (2012). *Counting the poor: New thinking about european poverty measures and lessons for the United Stat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and School of Public Policy, University of Maryland.
- [41] OECD. (2011b).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 OECD Publishing. Retrieved form <http://dx.doi.org/10.1787/9789264119536-en>
- [42] P. Van Parijs. (1995). *Real Freedom for All*. Oxford University Press.
- [43] A. B. Atkinson. (1996). The Case for A Participation Income. *The Political Quarterly*, 67(1), 67-70.
- [44] B. Ackerman, A. Alstott & P. Van Parijs. (2010). *Reorganization of distribution: basic income and social equity pay*. (Large Welfare Research Group, Station) House of Sharing. (Application Publishing 2006)
- [45] D. S. Kim, O. H. Kim, S. H. Lee & T. Y. Jung. (2011). Cognitive Categorization of Korean for Reason and Solution about Income Polarization,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7(4), 461-483. <https://doi.org/G901:A-0002998232>
- [46] R. G. Wilkinson. (2005). *The Impact of Inequality: How to make Sick Societies Healthier*, New York: The New Press. <https://doi.org/10.7748/ns2006.04.20.30.36.b449>
- [47] G. J. Yoo. (2007). The Concept and Actual Conditions of Inequality, *The Korean Labour Economic Association*, 30(3), 103-138. <https://doi.org/G901:A-0002455525>
- [48] G. S. Fields & G. J. Yoo. (2000). "Falling Labor Income Inequality in Korea's Economic Growth: Patterns and Underlying Caus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46(2)*, June. <https://doi.org/10.1111/j.1475-4991.2000.tb00952.x>
- [49] S. W. Kang. (2017). The Evaluation on the Effectiveness of Korean Income Security System Group, *Korea Social Policy*, 24(1), 213-237. <https://doi.org/G901:A-0008137651>
- [50] www.koweps.re.kr:442
- [51] K. Z. Hong. (2004). Analyzing the Length of Poverty Spell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24, 187-210.
- [52] H. J. Jin. (2010). Analysis for Consumer Groups Using Decision Tree Model: Focused on Tangerine Consumption. *Korea Agricultural Research*, 51(1), 19-40.
- [53] M. J. Hwang. (2016). Determinant of Poverty among the Elderly Living Alone: Using Decision Tree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 Knowledge Information Technology Society*, 11(4), 351-358.
- [54] M. H. Park & Y. S. Jung. (2009). A Study on the Reform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System for the Reducing of the Blind Spot in the Deterioration of Income Security: Comparison with the United Kingdom *Social Security Research*, 25(4), 101-127
- [55] B. D. Son. (2012). An Analysis of Income Security Effects of Korea's Deteriorated Income Security System : Focused on Minimum Living Security and the comprehensive coverage of the target.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Passage* (58), 7-28.
- [56] J. J. Yang. (2016). *Strategies for the Restructuring of the Deteriorated Income Security System and Financial Mobilization: Focused on the Strengthening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The Korean Society for Policy Studies.

- [57] Y. M. Kim & S. S. Han. (2017). Establishing the policy goals of the basic pension through the effects of poverty alleviation. *Korean Social Policy*, 24(4), 89-112.
- [58] D. E. Jung & H. Lim. (2016). A review of the adequacy of the basic pension system as a means of securing old income. *A study of law and policy*, 16(4), 111-147.
- [59] J. H. Park. (2017). A Study on the Basic Income Guarantee System for the Mitigation of Deterioration of Deterioration: Focused on the Changes in the Swedish and British Island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8(3), 455-476.

김 성 기(Kim, Sung Ki)

【장학원】



- 2007년 8월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석사)
- 2012년 2월 : 상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박사수료)
- 2007년 8월 ~ 현재 : 동원대학교 사회복지과 강사
- 관심분야 : 사회보장제도, 기본소득, 빈곤

· E-Mail : skkim6003@gmail.com